

방글라데시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9. 12.

I. 일반개황	2
II. 경제동향	3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148천 Km ²	G D P	796억 달러 (2008년)
인구	160백만 명 (2008년)	1 인 당 GDP	497달러 (2008년)
정치체제	의원내각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68.60 (2008)

-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는 인도와 미얀마, 북쪽과 서쪽으로는 인도, 그리고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음.
- 1947년 인도(주로 힌두교)에서 분리 독립한 서 파키스탄과 동 벵갈(양 지역 모두 주로 이슬람교)이 함께 파키스탄을 이룩한 후, 1955년 동 벵갈이 동 파키스탄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으나, 지리적으로 소외와 불만을 느꼈던 동 파키스탄이 1971년 파키스탄에서 탈퇴하여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바꾸었음.
- 2008년 기준 농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9%이고, 전체 노동인구의 약 50%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후진국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2010년 1,142명/km² 전망)를 기록하고 있으며, 몬순기후에 속해 매년 홍수와 사이클론으로 전 국토의 1/3이 피해를 입고 있으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약 2년간 지속되었던 과도정부는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2008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시나 총리가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제성장률	6.0	6.6	6.4	6.2	5.9
재정수지 / GDP	-4.4	-3.9	-3.1	-6.1	-6.4
소비자물가상승률	7.1	6.8	9.1	8.9	5.1

자료: IMF, EIU

□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성장세 둔화

- 방글라데시 경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6%대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루었음.
- 2007년 말 대규모 사이클론으로 인한 농업 생산량의 감소와 더불어 세계 경기 침체로 방글라데시 상품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및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인하여 2008년 경제성장률이 6.2%로 다소 둔화되었음.
- 2009년에는 GDP의 20%를 차지하는 농업부문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대외부문에서 수출이 아직 침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선진국의 경기침체로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증가세 다소 둔화됨에 따라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유가 및 식료품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자물가상승률 감소

- 고유가 및 주요 식료품 가격의 상승의 영향과 함께 자연재해로 인한 국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 제한 등으로 2007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1%로 크게 상승했으며, 2008년에도 정부의 유가 보조금 삭감 결정 등으로 8.9%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 이후 국제 유가 및 식료품 가격의 하락과 경기침체로 인한 국내소비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09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1%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제유가 및 국제 상품가격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0년에는 물가가 상승할 전망이다.

□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

- 방글라데시는 낮은 세금 징수율(2007/08년 기준 GDP의 11.2%),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세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열악한 인프라 등 많은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지출은 증가함에 따라,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 빈곤층 지원 복지예산 및 식료품 보조금 지급 증대, 자연재해 피해 복구 지원 등으로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수 증가세는 급격히 둔화되어 2008년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6.1%로 크게 늘어났으며, UN의 밀레니엄개발목표 달성 등을 위한 정부지출은 계속 증가하여 2009년에는 6.4%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방글라데시는 각국 정부 및 대외원조기관으로부터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을 지원받고 있음. ADB는 방글라데시에 대하여 2009년 7월부터 3년 동안 매년 8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며, 세계은행은 2009/10년 총 1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수입의존도 높은 경제구조**

- 방글라데시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대부분의 자본재와 원재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러한 높은 수입의존도로 인해 주요 산업이 환율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취약하고,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주요 원자재인 석유에 대한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수출구조의 취약성

- 총수출에서 섬유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로 섬유산업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총 수출의 6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선진국의 의류제품 수요가 위축될 경우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2008/9년 의류제품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3% 증가한 15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최근 6년 이래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또한 2009년 상반기 들어 의류제품 주문 감소 및 수출 가격 하락에 따라 의류산업의 수출 수입이 감소 추세에 있음.

□ 자연재해에 취약한 구조

- 방글라데시는 몬순기후에 속해 7월과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사이클론이 자주 상륙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비한 인프라가 열악해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농업부문이 GDP의 약 20%, 전체 노동인구의 약 50% 정도를 차지함에 따라, 국내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생산력 저하는 동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낮은 시장구매력

- 의류산업의 발달로 방글라데시의 경제활동인구의 구매력이 커지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해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임.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수요자는 인구의 10%에 불과하고, 전체 인구의 40% 정도는 여전히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음.

나. 성장 잠재력

□ 노동집약적 산업 발전

- 1억 5,000만 명 이상의 많은 인구와 저렴한 노동력은 방글라데시의 성장 동력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의류 및 신발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발달해왔음.

□ 풍부한 천연가스 및 석탄 보유

- 방글라데시는 약 20~30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당량의 석탄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가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 중반 가스 산업에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고, 이후 미국, 영국 등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왔음.

다. 정책성과

□ 경제구조 개혁과 외국인투자 유치 노력

- 방글라데시 정부는 1990년대부터 경제구조 개혁과 민간투자 장려,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추진해왔음. 부가가치세를 도입하고 부과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였음. 또한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하고 면세기간 제도 등 세제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신규투자를 장려하고 있음.
- 또한 방글라데시는 군수산업 및 원자력발전소, 주화 및 화폐 인쇄 등 일부 부문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외국인에 개방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지에서 가스, 석탄 등의 자원개발과 금융,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 천연가스 개발사업 부진

- 1998년 이후 추가로 가스전을 개발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 방글라데시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7조 7,000억 입방피트로 2011년까지 국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짐. 이에 따라, 2008년 5월 28개월의 벵갈만 가스전 개발을 위해 국제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스 개발에 7~8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1990년대 중반 가스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는 가스 산

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였으나, 정부가 가스 수출을 금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석유 메이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임. World Bank나 ADB 등에서 가스 수출, 특히 대 인도 수출이 방글라데시의 상품수지 구조 개선, 외환보유액 증대, 외국인투자 유치 증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수출을 장려했으나, 방글라데시의 전반적인 반인도 분위기로 인한 정치적 이유로 가스 수출이 금지되어 왔음.

□ 대외원조 및 섬유부문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

- 만성적인 재정수지의 대부분을 대외원조자금으로 충당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는 원조국 및 기관들이 요구하는 개발계획을 이행하여야 하며, 대외원조자금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방글라데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판단됨.
- 방글라데시는 안정적인 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섬유부문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산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 인프라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보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f
경 상 수 지	-176	1,196	857	1,032	2,808
경상수지 / GDP	-0.3	2.0	1.3	1.3	2.8
상 품 수 지	-3,199	-2,890	-4,195	-6,065	-4,312
수 출	9,303	11,554	12,474	15,442	15,905
수 입	12,502	14,443	16,669	21,507	20,217
외 환 보 유 액	2,767	3,806	5,183	5,689	9,050 ^{주)}
총 외 채 잔 액	18,919	20,491	22,033	22,825	23,215
총외채잔액 / GDP	32.8	34.0	32.1	28.7	26.1
D. S. R.	7.6	5.4	5.7	6.4	6.1

주: 2009년 8월말 기준

자료: IFS, EIU

□ 경기침체에 따른 수입 감소

- 방글라데시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중국산 섬유제품에 적용되던 미국 및 EU의 세이프가드 해제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총수출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부문의 수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반면, 주요 수입품인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입액은 2008년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
- 이에 따라, 2007년 상품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42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져 2008년 상품수지 적자 또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한 6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세계 유가 하락에 따른 원유 수입액 감소 및 쌀 풍작에 따른 식료품 수입액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가 약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증가 예상

-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등의 적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힘입어 경상이전 수지 흑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 2008년 7월 ~ 2009년 6월중 방글라데시 해외근로자의 송금액은 역대 최고인 10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9년에는 상품수지 적자규모 축소 및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경상수지 흑자는 2008년 GDP 대비 1.3%에서 증가한 GDP 대비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단기적 외채상환 불능 가능성 낮아

- 방글라데시의 총외채 규모가 2005년말 189억 달러에서 2008년말 228억 달러로 39억 달러 증가하였으나, 섬유산업 발전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총외채/GDP는 32.8%에서 28.7%로 감소하였으며, 2009년에도 약 26%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됨.

- 외채의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서 방글라데시의 외채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아와미연맹이 압도적 총선 승리로 집권

- 2006년 10월 지아(Khaleda Zia) 총리의 임기 종료후 총선의 공정성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자, 2007년 1월 군부가 무혈쿠데타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음. 이후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과도정부는 2008년 12월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총선을 실시하였음.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Wajed)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wami League: AL)이 총 300석 중 230석을 차지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에 따라, 14개로 구성된 대동맹(Grand Alliance)의 다른 정당의 지지 없이도 집권이 가능하게 되었음.

2. 사회동향

□ 사회불안 요인 상존

- 2009년 2월 방글라데시 무장 국경수비대 방글라데시 라이플(Bangladesh Rifles)이 급여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다가 정부의 경고로 진정된 바 있으나, 이후 사회 불안이 급격히 고조된 상태로 새로운 민간정부는 치안을 위해 군경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정부는 사회 불안을 야기시킨다는 이유로 국내 이슬람 세력의 조직을 금지하는 등 이슬람 세력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섬유 부문의 공장 폐쇄로 다카, 치타공(Chittagong) 등 주요 도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최근 정부가 외국회사들에게 가스 탐사권을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으로 대규모 파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국제관계

□ 원조 공여국들과의 관계 강화

- 세계은행을 비롯한 11개 국제원조기구들이 방글라데시의 자연재해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향후 15년에 걸쳐 총 4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원조 공여국들이 방글라데시의 민주화 진전과 인권탄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어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미얀마와 영해 문제로 불편한 관계 지속

- 방글라데시는 미얀마와 불법 국경 무역, 국경 분쟁지역인 벵갈만에서의 가스 탐사, 로힝자(Rohingya) 난민의 방글라데시에서 미얀마로의 송환 등의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초 미얀마가 벵갈만 수역에서 국경선 건설을 재개함에 따라 양국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음.

□ 인도 등 인근 국가와의 관계 개선

- 방글라데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네팔,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 7개국의 지역경제협력기구인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회원국임.
- SAARC의 자유무역협정인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South Asian Free Trade Area: SAFTA)가 2004년 1월 합의됨에 따라,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위한 강제적 타임 프레임을 설정하고 무역 촉진을 위한 비관세 장벽 제거, 미개발국에 대한 보상 등을 시행하게 되었음.
- 특히 주요 교역국인 인도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는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을 계기로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던 인도-방글라데시간 열차 운행이 재개되는 등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고 있음.

□ 중국과의 관계 냉각

- 중국은 대인도 견제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으며 특히 군사물품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관계가 강화되자 방글라데시와 중국간 관계는 냉각 기조에 있음.
- 방글라데시는 2009년 7월 중국 앞으로 50억 달러 규모의 원조를 요청했으나, 중국은 방글라데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의 진행 부진 등을 이유로 이 중 10억 달러만 지원해주기로 합의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 태도

□ 원조 공여국들과 관계 양호

- 방글라데시는 2007년까지 일본 등 원조국의 외채 탕감을 받은 사례가 있으며(2003년 1억 300만 달러, 2004년 1억 4,600만 달러, 2006년 8,300만 달러, 2007년 8,200만 달러), 동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에 의존하고 있어 원조 공여국들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1 (2009.12)	D1 (2008.10)
OECD	6등급 (2009. 4)	6등급 (2008. 4)

* 동국은 S&P, Moody's, Fitch의 신용평가 대상국이 아님.

* Euromoney: 121/186 (2008. 9) → 119/186 (2009. 3) → 116/186 (2009. 9)
 I.I.: 129/177 (2008. 9) → 134/177 (2009. 3) → 137/177 (2009. 9)
 I.C.R.G.: 118/140 (2008. 8) → 98/140 (2009. 3) → 92/140 (2009. 9)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전액 인수, 민간부문에 대한 제한적 인수
- 영국 ECGD: 민간부문에 대한 단기 인수가능
- 독일 Hermes: 제약 조건이 있을 수 있음
- 네덜란드 Atradius: 승인 신용장에 대한 단기 인수 가능, 재량한도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 문화협정(1979), 이중과세방지협정(1984), 투자보장협정(1988), 경제기술협력협정(1995)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07	2008	2009.1-11	주요품목
수 출	612	1,095	974	종이제품, 철강관, 합성수지 등
수 입	142	169	102	가죽, 동제품, 의류 등
합 계	754	1,264	1,076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규모는 2007년 7억 5,400만 달러, 2008년 12억 6,400만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09년 9월말 현재 481건, 약 1억 7,769만 달러를 기록(투자누계 기준)하고 있음.

□ 제 6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

- 대 방글라데시 EDCF 지원금액은 2009년 10월말 기준으로 총 7건, 1,308억원으로 제 6위의 경협 지원 대상국임.

VI. 종합 의견

- 방글라데시는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대외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최근 5~6년간 6%대의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9년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증가세 둔화 및 섬유부문의 수요 감소 등으로 5.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섬유제품의 높은 수출비중, 미국과 유럽지역 앞 수출 집중, 원자재 및 자본재의 높은 수입 의존도 등 취약한 수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품수지의 만성적인 적자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의 꾸준한 증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약 2년간 지속되었던 과도정부는 총선의 무기한 연기와 이로 인한 정국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결국 2008년 12월 총선을 실시하였으며, 셰이크 하시나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대다수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하시나 총리가 10년 만에 재집권하게 되었음.
- 방글라데시는 지난 6~7년간 의류부문 수출, 해외근로자 송금, 대외원조자금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장의 상당부분을 대외 원조 및 의류부문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업 다각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및 지원 인프라 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전문연구원 백 승 주 (☎02-3779-6648)

E-mail: sjpaik@koreaexim.go.kr